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82)(8/13/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48 장 영원한 날과 곤고한 인생, 6 절

마 6:21 -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6. 그런 이유로, 진리이신 주님께서서는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사랑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저절로 세상이 주는 행복을 기뻐하고, 세상에서 역경을 만났을 때에는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사랑한다면, 육신에 속한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될 것이고, 영을 사랑한다면,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것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듣고 싶어할 것이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도 그러한 대화의 여운들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피조물들과 결별하고, 자신의 본성을 쳐서 굴복시키며, 영적인 열심으로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맑고 깨끗한 양심으로 주께 순전한 기도를 드리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서 제거하여, 하늘의 찬양대의 일원이 되기에 합당하게 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해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며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계속 나눈다. **넷째,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추구해야 한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자신이 좋아하고 애착을 가지는 것을 향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고 하셨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자신이 애착을 가지고 좋아하고 탐하는 것을 향하며, 그것과 관련된 것들로 생성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관심과 애착, 그리고 그것에서 생겨난 생각은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은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롯은 비록 그 땅이 죄와 타락으로 물들었지만 그 곳에 있는 물질적 풍요로움과 화려함과 안락함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빼앗기고 녹아들고 만족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 증거는, 롯이 자신을 찾아 온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면서 다음날 롯을 재촉하며 빨리 성을 떠나라고 했음에도, 롯은 무슨 일인지 지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창 19:16). 심판이 임했는데도, 롯이 지체한 이유가 무엇일까?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집착 때문이 아니겠는가? 당시 롯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깊은 미련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탈출하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된다는 천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다(창 19:26). 롯의 아내가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는데도 그 땅을 뒤돌아본 것은, 자신에게 육신적인 기쁨과 만족을 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집착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죄악된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의 역시 롯과 그의 아내의 실수를 저지러 수 있다. 이 세상의 것에 지나친 애착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생각이 나 자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생각이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해 갈 것이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게 해야 한다.** 우리가 나의 생각을 고치고 다스리며 바른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6.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딤후 3:16-17)**한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한다.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게 한다.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행 2:37)**라고 물었다. 성경에 기록된 회개와 각성의 역사,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난 대부흥의 역사의 중심에는 말씀의 역사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말씀이 우리의 내면과 생각과 삶을 바꾼다.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빌 2:6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품기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을 목상하며, 특히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기 위해 애써야 한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다. **골 3:16 -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생각도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한 역사를 언급한 바울은 찬양하라고 말씀했다. 골 3:16 - ...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부르는 찬양이 악령을 쫓아 낸다고 말씀한다. 찬양의 사람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을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나갔다(삼상 16:23).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성령의 임재의 통로이고, 악한 마귀와 귀신을 물리치며,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 성도는 찬양을 통하여 영과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진다. 성도가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것처럼, 내 안에 더럽고 지저분한 생각들, 어두운 것들, 우울한 감정, 미움의 마음, 불안과 근심, 불만과 완악함 까지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환난과 근심 속에서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한다. 찬양은 성도에게 영적인 큰 능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시 71:12-14 - 12. 하나님이며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속히 나를 도우소서 13.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14.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림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2.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들을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구원과 생명의 열매가 끊임없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3. 창립 50 주년을 준비하는 우리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